테슬라 구매서 뱅킹·카드결제·세금 납부까지

주류통화 위상 갖춰가는 비트코인… 몸값 연일 '폭등세'

두 달 동안 70% 가까이 '급등'
장중 5400만원 넘어서기도
접속자·거래량 급증하면서
시스템 장애… 투자자 '울상'

가상화폐(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5만달러를 돌파했다. 가격 급등으로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비트코인 거래소 시스템 접속장애가 발생, 투자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16일 가상화폐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후 1시15분 한때 개당 5만달러(약 5493만원)을 돌파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2만9000달러에 머물던 비트코인은 두 달 동안 70%가까이 급등하면서 5만달러에 도달한 것. 이날 같은 시각 기준 국내 거래소 빗썸에서는 5460만원, 업비트에서는 5495만원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이 5200만원대를 기록하며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16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에서 관계자가 시세를 보고 있다. /뉴시스

◆비트코인 주류통화로 부상

최근 비트코인 가격 급등은 테슬라 등 해외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지불자산으로 인정함에 따라 비트코인이 점차 주류통화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주 미국의 전통적인 금융회사인 뉴욕멜론은행(BNY 멜론)이 비트코인 구입을 결정했다. 또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대량 매입발표 소식도 가격 급등에 불을 지폈다. 여기에 마스터카드는 지난 11일 결제시스템에 암호화폐를 일부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캐나다에서는 사상 최초로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를 승인하면서 비트코인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프란시스 수아레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시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직원들의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지급하는 것은 물론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거래량이 폭증, 이로 인한 거래소 접속이 어려워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변동폭이 큰 가상화폐 특성상 접속 장애 시간동안 대응하지 못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로 다가올 수 있어 불만이 커지고 있다.

◆거래소 접속 장애…투자자 불만

지난 13일 업비트는 접속자 폭증으로 오후 한때 서버 접속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공지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서버 다운은 접속자가 갑작스레 몰려서 발생한 일로, 문제 발견 즉시 공지 조치했다"며 "빠른 시간 내 정상화했으며 고객 문의 등 상황이 다양할 수 있어 그에 맞춰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오류를 인지한 후 20분 내로 서버 복구를 완료했으며, 최소주문 금액을 높이는 등 거래 시스템 안정화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거래소의 접속 오류 현상은 국내외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급등할 때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달 초 빗썸에서도 트래픽 과부하 현상으로 인해 접속장애가 발생했으며, 코빗에서도 지난달 웹사이트 접속이 어려워지면서 고객들에게 앱을 통한 이용을 안내하기도 했다.

또 글로벌 거래소인 바이낸스, 비트스탬프, 크라켄 등에서도 접속 장애 소식이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이 원하는 때에 거래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가상화폐업계 한 관계자는 "각종 이슈가 터질때면 국내외 가릴 것 없이 접속 장애 이슈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거래소 측에서도 꾸준히 서버 증설, 안정화 조치 등을 통해 문제에 대응하고 있지만 거래 시스템상 병목 현상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며 투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증시 활황에 40대 공격적 투자 늘었다

하나은행 100년 행복연구센터
40대 소득자 78% '금융 투자자'
절반 이상 "투자 규모 늘릴 것"
26% "공격적 투자로 바뀌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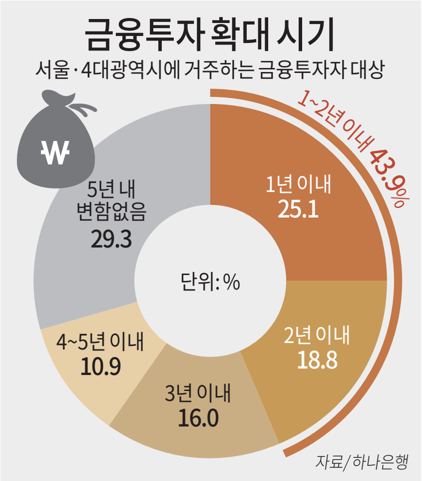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40대의 주식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투자성향도 보수적으로 바뀐 경우(12%)보다 공격적으로 바뀐 경우(26%)가 2배 이상 많았다.

하나은행 100년 행복연구센터는 16일 생애금융보고서 '대한민국 40대가 사는법, 주린이가 되기로 작정하다'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서울 및 4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40대의 금융투자에 대한 인식변화에 대한 설문결과를 담았다.

16일 보고서에 따르면 40대 소득자 중 78%는 이미 주식,채권, 펀드 등을 보유한 금융투자자다. 이들 중 절반 이상(57.4%)은 앞으로도 투자규모를 늘릴 예정이라고 답했다. 투자를 안하면 목돈마련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투자자의 절반(43.6%)은 최근 1~2년 사이 투자를 확대했다. 이 가운데 38%는 자신의 리스크 선호도가 바뀌었다고 답했는데, 보수적으로 바뀐 경우(12%)보다 공격적이 된 경우(26%)가 배 이상 많았다.

종전보다 공격적이 된 데에는 지속되는 저금리와 함께 최근 증시 활황의 영향이 컸다. 4명중 1명(24%)은 투자기회(타이밍)를 찾으면서 자신의 리스크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답했다.



다만 투자 움직임에 비해 투자손실 감수의향은 낮았다. 40대의 경우 재산형성시기이지만, 자녀교육, 주택 마련, 자기계발 등의 비용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 2명 중 1명(54.5%)은 여전히 '투자원금 보전'을 원하거나 '-5% 미만'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10% 이상'의 손실도 허용하겠다는 공격적인 투자자는 15.8%에 불과했다.

이원주 하나은행 연금신탁그룹장은 "해당 투자테마의 개별주식보다는 공모펀드나 ETF를 활용한 분산투자와, 투자시기를 분산한 적립식 투자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규모 확대에 따르는 리스크에 대한 이해와 관리해법 등 보수적인 투자자에 맞춘 관리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